

경제

14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의 게임월드 | 게임, 콘솔에 빠지다



게임업체가 멀티 플랫폼 트렌드에 맞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콘솔 게임기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콘솔 기기인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으로 출시되는 '검은사막', '크로스파이어', '테라' (왼쪽부터). 사진제공 | 펠어비스·스마일게이트·크래프톤

KT, 국내 최초 5G-V2X 기술 실증



KT는 국내 최초로 도로에서 5G-V2X(차량-차량 간 양방향 통신) 기술을 실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5G-V2X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전방추돌과 보행자 경고 등의 시나리오에 맞춰 점검했다(사진). 5G-V2X는 5G를 이용해 통신거리 제약 없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보행자와 차량 간 통신도 가능하다. KT는 차량 안전 위주 기본 기능을 우선 검증하고, 향후 영상 전송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서울, 대구, 판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와 결합한 실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KT는 국내 최초로 도로에서 5G-V2X(차량-차량 간 양방향 통신) 기술을 실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5G-V2X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전방추돌과 보행자 경고 등의 시나리오에 맞춰 점검했다(사진). 5G-V2X는 5G를 이용해 통신거리 제약 없이 다양한 크기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보행자와 차량 간 통신도 가능하다. KT는 차량 안전 위주 기본 기능을 우선 검증하고, 향후 영상 전송같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능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서울, 대구, 판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와 결합한 실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명근 기자

검증된 인기 게임들 '콘솔 유저를 잡아라'

'크로스파이어' 엑스박스용 개발 '테라' 7월 PS4 버전 아시아 공략 '검은사막' 등 콘솔 타이틀 잇따라

국내 게임업체가 콘솔(비디오) 게임기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콘솔 게임이 강세를 보이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다. 하나의 지적재산권(IP)을 PC와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 기기로 확장하는 멀티 플랫폼 트렌드가 최근 뚜렷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인기 PC 온라인 일인칭 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한 콘솔 게임 '크로스파이어X'를 개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 관련 콘솔 버전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기기 엑스박스로 출시할 이 게임은 언리얼4 엔진으로 제작 중이며 콘솔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크래프톤은 인기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테라'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을 7월2일 한국과 홍콩,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한다. '테라'는 지난해 국내 PC MMORPG 중 처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4와 엑스박스원 등 콘솔 타이틀로 재탄생했다.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콘솔용 '테라'는 게임 컨트롤러의 조작감을 살린 것이 큰 특징이다. 크래프톤은 앞서 자회사 펄지를 통해 PC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모바일과 콘솔 버전으로 선보였으며, 신작 역할수행게임(RPG) '미스트오버'도 PC와 함께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개발 중이다.

펠어비스는 인기 PC MMORPG '검은사막'을 플레이스테이션4용으로 출

시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주문은 7월 2일부터 시작한다. '검은사막'은 앞서 모바일은 물론 엑스박스원으로도 출시됐다. 플레이스테이션4 타이틀은 4K 화질 그래픽과 함께 완성도 높은 액션,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UI)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 밖에 네오위즈가 인기 PC MMORPG '블레스'를 기반으로 한 콘솔 게임을 준비 중이며, 라인게임즈는 콘솔 게임 '베리드 스타즈'를 개발 중이다. 넥스와 넷마블 엔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도 콘솔 타이틀을 선보일 예정이다.

dionys@donga.com

11번가 '안심환불 서비스' 스타트

11번가는 '안심환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반품 신청을 검토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환불하는 서비스로 기존에 8일 정도이던 반품 기간이 2~3일 정도로 빨라진다. 서비스 대상은 결제 건당 10만 원 미만의 국내배송 상품이다. 주문 제작이나 수급, 지류상품 등 환급성 성격의 상품 등은 제외된다. 한편 11번가는 판매자를 위한 '이의 제기'도 운영한다. 판매자가 반품 사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 11번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자가 반품 사유를 다시 확인해 판매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김명근 기자

카카오 모바일게임 기대작 '달빛조각사' 아트웍 공개

모바일게임 기대작 '달빛조각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카카오게임즈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 중인 '달빛조각사'의 아트웍(사진)을 공개했다. 달빛조각사는 누적 독자 500만의 동명 인기 판타지 소설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원작 속 방대한 세계관과 독특한 콘텐츠를 구현해 마치 소설 속 가상현실 게임 '로열로드'에 접속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바람의나라'와 '리니지', '아키에이지' 등으로 PC MMORPG 시대를 연 송재경 대표와 초기 리니지 개발을 주도한 김민수 이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2019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해외서 먼저 히트 '탈리온' 26일 국내 상륙...사전예약

게임빌은 해외에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 '탈리온'(사진)을 26일 국내 출시한다. 현재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이 게임은 지난해부터 '원 빌드 지역별 순차 출시 전략'에 기반해 출시 국가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일본에서 앱스토어 매출 7위에 올랐고, 아시아와 러시아,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게임빌과 유틸플러스가 손잡고 개발한 '탈리온'은 진영간 전투(RvR)



에 특화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고품질 그래픽과 360도 시점 조절이 자유로운 풀 3D 뷰 등을 갖췄다. 김명근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바우네 70년 전통

나주곰탕

6,500원

1인분 소고기 양만 해도 60g 1.5배!
가격에 놀라고, 맛과 푸짐한 양에 2번 놀라는 -나주곰탕

15개 테이블 중소형 매장의 놀라운 회전율, 하루 600그릇 이상 판매...
억대 매출 매장 수두룩!
세 달에 벌거 한 달에 벌자! 시작하십시오!

2019 국가대표브랜드 수상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지수 1위 수상

20여 가지의 곰탕류와 고품질 안주류...
골라먹는 맛과 다양한 메뉴가 있어 행복한 점심, 밤이면 건강한 술자리,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24시간 영업도 가능한 바우네 나주곰탕

바우네 나주곰탕 전문점 및 업종변경 모집

고객만족 경쟁력

- 소고기 곰탕을 6,500원 먹을 수 있는 즐거움
- 다른 당류에 비해 소고기 수육이 60g 1.5배 듬뿍
- 사골로 푹 고은 진국 육수와 질리지 않는 맛
- 전통 나무식 맑은 곰탕은 젊은층과 여성고객 선호
- 골랑만 있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서 매일 방문
- 20여 가지 메뉴가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 가득
- 한끼의 식사로 충분한 고단백 건강 영양식

성공창업 경쟁력

-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서민 가격대라 식사손님 폭주
-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높음
- B급, C급 상권에서도 빠른 입소문으로 초대박 행진 중
- 가장 대중적인 소고기 국밥이라 남녀노소 폭넓은 소비층
- 조리시간이 짧아 빠른 회전율로 점심대에만 4~5회전
- 다양한 메뉴로 식사와 저녁 술자리까지 24시간 영업 가능
- 반가공 공급시스템으로 주방인건비 절감과 쉬운 운영

업종변경 시 3,000만원이면 대형매장까지 OK!

"지난 2년동안 179개 가맹점 개설! 오직 변함없는 고객만족 100% 실현과 가맹점과의 상생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NAVER D2M 바우네 나주곰탕

매일경제TV "매거진투데이" 방영 언론, 블로그, SNS에서도 인정한 **매박맛집등록**

창업 문의 **02) 2203-2040 (대)**
www.najoo.kr 부산경남지사 가맹문의 080-008-4750